

‘광주형일자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송갑석 의원 발의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 법률안도

‘광주형일자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형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29일 본회의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과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상생

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신설 등이 골자다.
또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조항이 추가됐다. 이 법안은 올해 상반기 통과가 예상됐지만 야당의 보이콧 등으로 심사가 지연돼 자칫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예산집행 등에 곤란을 겪고 있던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다”며 “대한민국 대표 상생형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형일자리법과 더불어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들 2개 법안은 지난 7월 민주당의 19개 민생입법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이밖에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산자위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한편, 지난 2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광주형일자리 추진 주체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무실이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엔 공장건설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정현(순천·무소속) 국회의원 인터뷰

“신당 만들어 정치판 판갈이”

보수 정당 말단 당직자에서 출발, 철벽과도 같았던 지역 구도를 깨뜨리며 전남 지역구에서 연속 당선된 것은 물론 보수 여당 대표를 지내는 등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이정현 의원(순천시·3선)이 정치적 행보를 마치고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은 물론 당까지 버리고 박막으로 하방, 정치적 성찰에 나섰던 이 의원은 2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신당 창당 카드를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업·민주화 세력 뒤엎겨 갈등 거듭
미래 이끌 전문성 갖춘 세력 나서야
새로움 넘어 창조적 파괴 필요
호남민심 내년 총선 변혁 주도해야

-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현장을 다녔다. 의정 활동 외에 시간이 나는 대로 배낭을 메고 전국 102개 시군구를 찾아 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일본, 대만,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틈틈이 외국도 다니며 국민 통합의 방법과 국제 사회의 시대적 흐름도 주시했다. 정치적 성찰을 통해 미래를 모색해 왔다.
-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나.
▲결국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현재의 정치 세력들은 입으로는 ‘민주’,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민중’, 국민을 쫓고 보고 있다. 이제 정치 주체 세력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인적 쇄신은 그동안에도 있지 않았나.
▲정당과 정치인도 수명이 있다. 시대적 과제 등 정치 주체 세력에게 주어진 역할이 끝나면 물갈이를 넘어 전반적인 판갈이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한국 정치는 상한 국의 국물만 같고 건더기는 갈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배탈이 날 수밖에 없다.
-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한국 정치사에는 자유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등 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체 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와 함께 세력 교체가 이뤄져 왔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주체 세력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위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들이 뒤엎겨 혼선과 혼란, 갈등과 불신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이 너무 오래 고여 있었던 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 주체 세력이 나서야 할 시기다.
-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쇄신돼야 한다. 새로움을 넘어 철저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잔인하게 기득권을 깨야 한다. 육하고 비난하면서도 기존의 프레임에 빠져 기득권을 유지시켜준다면 한국 정치는 바뀔 수 없다. 이제 한탄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21대 총선은 선거 혁명이 화두가 돼야 한다.
- 판갈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결국 신당 창당이 방법이다. 대한민국 미래

를 화두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무치고 모일 것이다. 기존의 정치 엘리트가 아닌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이 주축이 된 ‘미생모(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조직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내년 2월이면 가시화될 것이다.
-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인가.
▲지역민의 성원으로 지역구도를 깨겠다는 정치적 꿈을 이뤘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결코 미래로 나갈 수 없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보고 싶다. 두렵지만 가야 할 길이기엔 피하지 않겠다.
- 지역민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 저만큼 호남 민심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없을 것이다. 미미한 정치인을 여기까지 키워주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광주 서구에 출마, 불과 720표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18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데 이어 19대·20대 총선에선 순천에서 연속 당선, 지역 장벽을 무너뜨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서러워서 울었고 고마워서 울었던 기억이 새롭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정치 역정이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보다는 서포터로서, 히딩크보다는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으로 시민들과 함께 한국 정치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싶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27일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이후 이용성 광주시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혁신추진위 출범 1돌 성과 공유 시민토론회

광주시장 직속 광주 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민선 7기 시정혁신 등 성과와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혁신추진위원회는 27일 광주시청 시민 숲에서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2020년 시정혁신방향에 대해 시민, 시의원, 공무원, 혁신위 위원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 공감과 소통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정년 일자리 우선적 해결 ▲개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다양성 강화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4차 산업의 선제적 대응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스마트 공장 지원 확대 ▲시 재정사업의 미세먼지 대책 강제하는 방안 등의 제안도 제시됐다. 한편, 혁신추진위는 출범 후 전체 회의, 특별·분과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공공분야 4건, 문화예술 3건, 경제산업 2건, 복지 2건 등 11건의 시정 혁신안을 권고·제안했다.
/최권일 기자 cki@

내년부터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 김익주 시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내년부터 광주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를 할 전망이다.
김익주(민주·광산1·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2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광주지역 생활시설 217개소와 이용시설 1980개소 등 2197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여성 복지시설 40개소, 아동청소년 시설 366개소 등이 연차적으로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대상은 보조금과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 공사와 구매 등 계약, 부동산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사항 전반이며, 감사관이 조사와 점검, 확인, 검증 등 사회복지시설에 꼭 필요로 하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실시 요건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사회복지법 등에 따른 명령 위반 ▲시설 종사자의 불법, 탈법,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병원 농협 회장 ‘사회 공헌 대상’ 수상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사진)이 최근 (사)한국 감사협회의 ‘2019 사회가치 실현 공헌 대상’ 첫 수상자로 선정, 수상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14일 취임 이후 농가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농촌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나눔경영을 실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가치 실현 공헌 대상’은 한국감사협회가 올해 처음 제정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등 공공의 이익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기관에 수여한다.
김 회장은 “농협이 농업·농촌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